

전력소비 40% 점유 '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효율제 적용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 의무화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효율제가 적용된다.

산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도입키로 결정(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004.8.25)함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최저효율제를 시행해 표

준전동기를 삼상유도전동기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의 2%(약 3,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을 검토중”이라면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올 하반기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규격(안) 제정 및 업계

공청회를 실시하고, 내년 4월 “효율관리기저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을 개정하고, 2008년 1월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제(MEPS)을 시행할 방침이다.

참고로 미국은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PAAct)를 통해 1997년 10월 24일부터 고효율전동기로서만 생산·판매(수입)가 가능한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산자부 에너지관리과(02-2110-5423)

전기 작업의 감전재해 KS가 줄인다

기표원, 활선작업지침서 배포 및 기술세미나 개최

□ 국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등의 정밀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제품생산에 있어 전력품질의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전 없는 활선상태의 전기설비 보수, 점검작업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선작업에 필요한 도구 및 체계화된 작

업방법에 대한 표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의 효율성 저하 및 감전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

○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전재해 중 활

※ 활선작업(活線作業, Live Working)

작업원이 전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무정전공법

선작업 재해가 전체의 약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활선작업 재해발생 감소를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된 활선작업 공구 및 작업방법에 대한 국제표준 25종을 KS규격으로 도입하였음

- 또한, 기술표준원은 활선작업 공구 제조업체 및 활선공사업체 등의 규격이해도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활선작업지침서’를 개발하여 무료 배포할 예정임

- 지침서 배포와 함께 6월 20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활선작업의 위험성평가방법, 절연용보호구 및 방호구 등에 대한 기술·표준 동향

을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

- 이번 활선작업분야 KS규격 제정 및 활선작업지침서 개발은 작업자의 안전도모 뿐만아니라, 활선작업 공구 제조업체들의 품질향상과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의 :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과 02-509-7298]

장마철 감전사고 대비 가로등·신호등 특별점검

산자부 6 ~ 7월 두차례에 걸쳐



장마철 대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가로등·신호등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전기안전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취약 전기설비인 가로등·신호등설비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6월 14일~7월 20일

2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14~19일 전국 상습침수지역의 가로등·신호등 전기설비에 대해, 2단계는 기타 지역의 금년도 정기점검 대상 중 미실시한 설비에 대해 7월 2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해 불량 전기설비는 조기에 개·보수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여부, 금속제 분전함의 접지시

설 상태, 분전함 및 등주 점검구(안정기) 설치높이와 신호등 맨홀 내부 전선접속 상태, 가로등주 점검구(안정기)내 전선 연결상태 확인 등 누전에 의해 감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이번과 같은 전기안전 특별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5]